서울시, 다락설치 기준 마련

지붕 내 설치·바닥제외 면적 명기

청년주택 공간활용 효율성 제고
원칙적으로 최상층에만 허용
난방·급수·위생설비 설치 금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락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법에서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건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바닥면적과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다락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다락 설치 기준을 세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다락은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지붕과 천정 사이 공간을 막아 물건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곳을 의미한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시는 "다락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실 등 주거 공간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부서별, 자치구별 다락 설치에 대한 인허가 기준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건축 관련 규정에서는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를 다락 높이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한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르면 면적으로 가중 평균한 값을 높이로 삼는다. 다락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설치 기준을 보면 다락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상층에만 허용된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계획해 미관·구조·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경우가 아니어도 다락을 둘 수 있다.

시는 다락을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외벽, 일부 경사지붕 등을 덧댈 수 없도록 했다.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도 세울 수 없으며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도 만들면 안 된다.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달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난방, 급수시설, 위생설비의 설치를 금지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다락을 거실로 사용할 수 없음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임을 명기토록 했다. 불법으로 다락 공간을 늘려 거실이나 주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감도. / 서울시

4·19 사거리,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성

서울시 내년 6월 완공 목표

서울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가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4·19사거리부터 아카데미하우스까지 4·19로와 삼양로 139길 인근을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재생한다고 1일 밝혔다.

4·19사거리 일대는 국립 4·19민주화 묘지와 광복군 합동묘소, 이시영 선생과 이준 열사 묘소 등 근현대 역사명소가 있지만 가로환경이 낙후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화거리는 ▲근현대 역사·문화의 거리 ▲민주·참여의 거리 ▲상생 문화예술거리 총 세 구간으로 나눠 조성된다.

시는 북한산 둘레길·순례길 입구에 민주화의 태동을 상징하는 원형 바닥 패턴을 설치하고 독립운동과 4·19혁명을 소개하는 안내시설을 두기로 했다. 근현대사기념관 앞 보도에는 선열들을 형상화한 별자리 조명을 단다. 보도 폭을 넓히고 가로수를 심는 등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인근을 지날 때 대중교통을 타고 우회로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노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4·19사거리 일대 특화거리가 시민 누구나 쉬고 걸으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관광객도 즐겨 찾는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의무 작성"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거리두기 2단계 해제전까지 효력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했거나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집회나 관광, 일회성 행사에 이용되는 버스가 적용대상이다. 통근이나 통학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는 지난 광복절 때 전세버스가 대거 동원된 서울 도심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지만 참가자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시는 전세버스 사업자가 탑승객 명부를 작성할 때 전자출입명부(KI-PASS)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이름·연락처·방문시각과 같이 방역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보관·관리하고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장애인이나 단기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어려워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전세버스 이용객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전세버스의 경우 장시간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머무르는 특성이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명령 준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옛 능곡역사 새 이름 '능곡1904'"

5차례 현장투표 통해 새 명칭 선정

고양시는 능곡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옛 능곡역사 리모델링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새롭게 조성될 공간 이름이 '능곡1904'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 능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옛 능곡역 네이밍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도시재생 디자인대학 심화과정 '다시 짓는 능곡역'을 총 3회에 걸쳐 운영했다.

1강에서는 고양시사(고양문화원 발간)를 통해 배우는 능곡의 역사와 유래, 옛 능곡역 현장답사를 통한 공간의 이해를 진행했고, 2강에서는 교구를 활용한 마을자원과 컬러 알아보기, 네이밍 방법을 진행했다. 3강에서는 주민 스스로 직접 네이밍을 해보며 모둠별로 사례발표를 하며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 과정에는 총 66명의 인원이 수강했고 이를 통해 100여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리모델링 전 구 능곡역

주민들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능곡역의 역사를 상징하는 '능곡 1904'외 건물의 형태를 표현한 'ㄴㄱ사이', 지역 유래를 상징하는 '능마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능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네이밍의 전문성을 고려해 도시재생, 역사문화, 브랜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후보작을 선정, 총 5차례에 걸친 현장투표를 통해 새로운 명칭을 최종 선정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고양 강매 석교'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

고양시에 유일하게 남은 옛 돌다리

고양시는 덕양구 강매동에 소재한 '고양 강매 석교(高陽 江梅 石橋)'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2호로 지정된 '고양 강매 석교'는 덕양구 강매동 강고산마을 창릉천변에 위치해 있다. 석교는 전체길이 17.74m, 최고 높이 2.48m, 최대폭 3.57m로 네모진 돌기둥 24개로 먼저 교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 장방형의 교판석 110개를 2열로 놓았다.

이 석교는 교판석 중앙에 새겨진 '강매리교 경신신조(江梅里橋 庚申新造)'라는 명문을 통해 1920년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교판석에 새겨진 강매리는 대한제국의 리동합병 정책에 따라 1910년 8월 25일 강고산리(江古山里)와 매화정리(梅花亭里)가 합쳐진 이름이다.

고양 강매 석교 /고양시

'고양 강매 석교'는 옛날 고양군에서 한양으로 오가던 민간 통행용 돌다리로 현재 고양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옛 돌다리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서울시

'지갑없는 주차장' 운영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자동 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비대면 결제시스템 '지갑없는 주차장'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113곳에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뒤 요금을 내려면 주차장 관리인에게 신용카드를 내 결제하게 하거나 차량을 세우고 카드를 직접 단말기에 갖다 대야 했다.

앞으로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번호와 결제수단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주차장을 나올 때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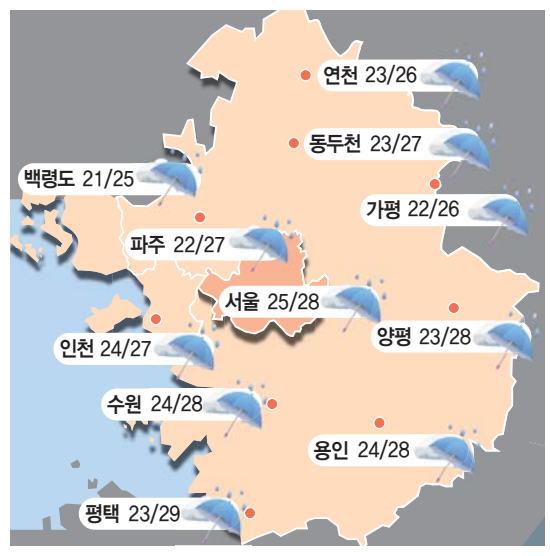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03 | 해짐 / 19:00

9월
2일 (水)
음력 : 7월 15일

수도권 날씨
28 ~2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